

패 패 패 패 패 ... 무기력한 호랑이 5연패



‘호랑이 군단’이 잠실 만원 관중앞에서 스윙패를 당했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의 시즌 6차전에서 7회 초 타진 최형우의 동점 스리런 기세를 잊지 못하면서 4-8패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잠실에 만원 관중이 들어왔지만 KIA는 졸전 끝에 3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5연패에 빠졌다. 두산과의 올 시즌 상대전적은 1승 5패가 됐다.

지난 9일 통산 161승을 기록한 양현종은 이날 ‘한화 레전드’ 정민철을 넘어 KBO리그 통산 다승 단독 2위에 도전했다. 하지만 위기가 이어졌고, 수비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대기록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양현종이 1회에서 박계범에게 번트 안타를 허용했지만 양의지를 삼진, 양석환은 중견수 플라리로 처리했다.

2회에는 허경민이 이어 김민혁에게 연달아 안타를 내주면서 무사 2-3루에 몰렸다. 실점 위기에서 송승환을 3루수 파울 플라리로 잡은 양현종은 조수행과 이유찬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3회도 쉽지 않았다. 선두타자 정수빈의 볼넷, 박계범의 좌전 안타로 무사 1-2루. 양의지를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한 양현종이 양석환은 유격수 땅볼로 잡고 3회를 끝냈지만 4회 2사에서 송승환, 조수행에 이어 이유찬까지 3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실점을 기록했다.

두산에 4-8...잠실 원정 스윙패 최형우 7회 짜릿한 동점 스리런 8회말 아쉬운 수비에 ‘물거품’

양현종은 5회 이날 첫 자비범외닝을 만들었지만 허경민의 중전안타로 시작한 6회를 넘지 못했다.

김민혁의 3루 땅볼 때 2루수 김선빈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무사 1-2루, 희생번트로 1사 2-3루가 됐다. 이어 조수행의 번트 타구가 3루 방향으로 향했고 포수 한승택이 공을 잡았지만 그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에 홈이 들어왔다.

이어진 1사 1-3루에서 이유찬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0-3에서 양현종의 등판이 마무리 됐다. 최지민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정수빈의 2루 땅볼로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박계범의 땅볼 때 2루수 김선빈의 손보타 타자주자의 발이 빨랐다. 아쉬운 수비 속 0-4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7회 일방적인 흐름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최고 참’ 최형우의 한방이 터져나왔다.

KIA는 앞서 두산 선발 알칸타라 공략에 실패했다.

2회 최형우가 포수 실책으로 출루했지만 이우성의 안타로 2루까지 향한 뒤 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3회 1사에서는 류지혁이 좌전안타로 나갔지만 역시 득점에 실패했고, 4회에는 선두타자 소크라테스의 2루타와 황대인의 안타로 무사 1-3루를 만

들었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5회에도 류지혁의 선두타자 안타가 기록됐지만 2개의 잔루만 남았다.

6회는 이번 시리즈에서 좋은 수비로 KIA를 울렸던 두산 중견수 정수빈의 활약도 펼쳐졌다.

공-수에서 두산에 밀리며 0-4에서 시작한 7회, 박찬호가 바뀐 투수 김강물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다. 류지혁의 중전안타에 이어 고종욱의 타구가 유격수 클러브 맞고 뒤로 흐르면서 내야안타가 됐다.

무사 만루의 기회에서 김선빈의 유격수 땅볼로 아웃카운트 하나가 올라갔지만 3루에 있던 박찬호가 홈에 들어오면서 1-4가 됐다.

이어 이병헌으로 투수가 교체됐고 최형우의 타석이 전개됐다. 조구 몸쪽 볼을 피한 최형우가 2구째 직구를 받아 우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4-4를 만들었다.

짜릿한 동점 스리런이 나왔지만 KIA가 8회말 다시 수비에 울면서 백기를 들었다.

장현식이 선두타자 이유찬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정수빈의 3루 땅볼이 나오면서 선행주자를 처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류지혁의 송구가 살짝 빗나갔고 2루수 김선빈이 포구에 실패하면서 무사 1-3루가 됐다. 박계범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4-5, 이어 양의지의 투런포가 나오면서 경기의 흐름이 두산에 기울었다.

마무리 정해영도 투입됐지만 허경민과 양찬열에게 안타를 맞는 등 점수는 4-8까지 벌어졌고, KIA의 5연패가 확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리그 KIA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7회초 1사 1, 3루 KIA 최형우가 동점 스리런 홈런을 치고 밝은 표정으로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골침묵 ... 6경기 연속 무승

대구와 홈경기 0-2 완패



광주FC가 골침묵 속에 6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 빠졌다.

광주는 지난 1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13라운드 홈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7개의 슈팅을 기록

한 광주가 70%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승리는 대구의 차지가 됐다.

최근 6경기에서 2득점에 그친 광주는 2무 4패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문전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엄지성의 슈팅이 나왔지만 수비진을 뚫지 못했다.

전반 31분에는 산드로가 왼쪽에서 이견희에게 공을 넘겨줬고, 패스를 받은 이견희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수비진에 막혔다. 전반 35분에는 엄지성의 슈팅이 나왔지만 대구 골키퍼 최영은 품에 안겼다.

이정호 감독이 후반 시작과 허울을 투입해 제공권 싸움을 전개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고 바로 위기를 맞았다.

후반 4분 프리킥 상황에서 홍철이 원발로 직접 슈팅을 하면서 광주 골대를 노렸지만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이를 막아냈다.

이어 두 팀이 빠르게 양팀 진영을 오가면서 승무하는 공방전을 벌였다.

후반 18분 골키퍼 김경민이 수비를 위해 달려나온 사이 상대의 슈팅이 나왔지만 이순민이 공을 막았다. 그러나 이어진 대구 공격에서 박세진의 오른발 슈팅이 광주의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후반 21분 대구 바셀루스가 역습 왼쪽으로 공을 몰고 올라간 뒤 슈팅까지 했지만 김경민이 공을 품에 안았다.

후반 25분 광주 벤치에서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광주FC가 지난 1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13라운드 홈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후반 교체로 들어간 허울(오른쪽)이 드리블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문전에서 아사니의 논스톱 원발 발리슈팅이 나왔지만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몇 차례 공세에도 득점에 실패한 광주가 후반 31분 고재현의 오른발에 추가골을 허용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아사니가 원발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경기는 0-2패로 끝났다.

광주 이정호 감독은 “경기장에 팬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왔는데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 뭐라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중한 시간인데 헛되게 보내지게 만든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슷한 패턴의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정

호 감독은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수비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보완이 된 것 같다. 공격하다가 역습에 대비했던 부분도 준비했는데 많이 어렵다.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찬스에서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해하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모두 내탓이다. 좋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선수들이 기가 죽지 않도록 내가 더 편하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축구전용구장에는 3616명이 입장해 뜨거운 응원전을 벌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슈팅 0개...토트넘 UEFA 챔스 진출 실패

에스턴 빌라에 1-2 패배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고도 슈팅 없이 침묵한 가운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을 향한 토트넘(잉글랜드)의 희망도 사라졌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같은 시간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20승 6무 9패)가 울버햄프턴을 꺾고 승점 66을 쌓으면

서 6위 토트넘(17승 6무 13패·승점 57·골 득실+6)과 승점 차가 9로 벌어졌다. 이로써 토트넘이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맨유를 제치고 UCL 진출의 마지막 선인 4위는 탈환할 수 없다.

아울러 토트넘은 유로파리그(UEL)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UEL 본선 조별리그 직행 티켓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우승팀과 5위 팀에 주어진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제이콥 램지에게 실점해 0-1로 끌려가던 토트넘은 전반 24분 센터스텝에서 전방으로 튀어 나가는 손흥민을 향해 케인의 날카로운 침투패스가 전달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그러나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고,

뒤늦게 오프사이드까지 선언됐다.

전반에만 오프사이드를 5회 저지르면서도 슈팅은 1개도 기록하지 못한 토트넘은 후반 7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공을 탈취한 게 최전방의 케인에게 흐르며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케인의 오른발 슈팅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땅을 쳤다.

아쉬운 결정력이 토트넘의 발목을 잡는 사이에 후반 27분 루이스의 프리킥 골을 터져 에스턴 빌라가 2-0으로 달아났다.

토트넘은 후반 41분 케인이 경합 중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직접 키커로 나서 리그 27호 골을 터뜨렸다. 이어 손흥민이 종료 직전 마지막으로 뒷공간을 내달린 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패배를 면하는 듯했지만, 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이 없던 일이 됐다.

/연합뉴스

김하성 솔로 홈런에도 샌디에이고 4연패 수렁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12일 만에 홈런 포를 터뜨려 시즌 4번째 포물선을 그렸다.

김하성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방문 경기에 7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2회초 첫 타석에서 대포를 쏘았다.

1-3으로 추격하던 2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김하성은 다저스 왼수 투수 윌리엄 우리아스의 맛있는 체인지업을 힘으로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1점 홈런을 날렸다.

지난 2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 이래 12일 만에 터진 시즌 4번째 홈런이다. 김하성의 시즌 타점은 13개로 늘었다.

홈런 비거리는 약 129m, 타구 속도는 시속 174.5km로 측정됐다.

김하성은 전반에도 0-2로 끌려가던 7회초 2사 1-3루에서 다저스 선발 더스틴 메이의 시속 96.2마

일(약 155km) 몸쪽 싱커를 공략해 좌익수 쪽으로 동점 2루타를 날리는 등 이를 연속 장타쇼를 벌였다.

그러나 샌디에이고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2-4로 다저스에 져 4연패를 당했다.

4연승을 질주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다저스와 지구 3위 샌디에이고의 승차는 6경기로 벌어졌다. 샌디에이고는 올해 다저스에 1승 4패로 열세다. 김하성은 5회에는 좌익수 뜬공, 7회 삼진으로 각각 물러났다.

다저스는 1회 J.D. 마르티네스의 좌중월 석 점 홈런으로 승기를 잡고, 3-2로 쫓긴 3회 프레디 프리먼의 2루타와 윌 스미스의 우전 적시타를 묶어 1점을 보냈다.

샌디에이고는 9회말 투아웃 후 연속 안타로 마지막 기회를 잡았으나 제이크 크로넬워스가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